

바다의 황금시대  
'위도파시(靑島波市)'재현의 의미와 추진방향

ISSUE  
BRIEFING  
2018

전북연구원 이슈브리핑  
2018.08.31 vol.178

[www.jthink.kr](http://www.jthink.kr)

연구진  
이통기 선임연구위원

# ISSUE BRIEFING 2018

전북연구원 이슈브리핑  
2018.08.31 vol.178

## CONTENTS

---

### 바다의 황금시대

#### ‘위도파시(鰐島波市)재현의 의미와 추진방향

|                                |    |
|--------------------------------|----|
| I. 위도파시는 우리나라 3대 파시 중 하나 ..... | 4  |
| II. 위도파시 재현의 의미.....           | 8  |
| III. 위도파시 재현을 위한 추진방향 .....    | 11 |



발행인 김선기

발행처 전북연구원

주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콩쥐밭길로 1696

TEL\_063)280-7100 FAX\_063)286-9206

※이슈브리핑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전라북도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지난 호 이슈브리핑을 홈페이지 ([www.jthink.kr](http://www.jthink.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 바다의 황금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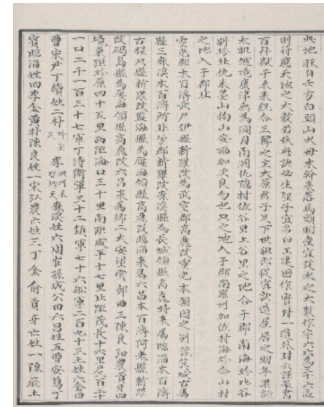
### ‘위도파시(嵎島波市)’재현의 의미와 추진방향

- 위도파시는 흑산도파시, 연평도파시와 함께 우리나라 3대 파시 중의 하나로 조선전기부터 해방이후까지 형성된 대표적 해상어업시장임
- 파시(波市)는 조기 등 어류가 많이 잡히는 어장을 통해 해상위에 열리는 시장으로 일시적 취락이 형성되고 이동성을 지니고 있음
- 파시는 세종실록지리지에 최초로 등장하면서, 신증동국여지승람, 숙종실록 등에서 파시(波市), 파시평(波市坪), 파시전(波市田) 등으로 불리면서 사용되었음. 파시를 통해 어세(漁稅)를 받아 조세로 활용하기도 하였음
- 특히 위도파시는 매우 큰 조기시장이 형성되었다고 탁지지(度支志)에 언급될 정도로 서해안의 대표어장 중심지로 발달하였으며, 또한 위도는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에 의하면 군사적 요충지로 숙종8년에 위도진이 설치, 53명의 수군이 주둔
- 위도파시는 일제강점기에 가장 호황시기였으며 그 당시에 어선 수백척과 수천명의 승조원 등이 위도에 머물면서 생활을 할 정도로 번성시기였으나 해방이후 점차로 어족자원의 고갈로 1970년대초 파시가 소멸되었음
- 그러나 위도파시는 서해안 지역의 대표적인 3대 파시임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가치의 복원 및 재현, 어업문화 재조명 등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역사의 기억만이 존재하고 있음
- 현재 연평도파시 및 흑산도파시는 파시어장 등을 복원하고 파시골목의 문화자원화를 통해 파시의 가치 재해석 작업을 하고 있고, 특히 연평도에서는 남북수산교류를 위해 공동해상파시 사업 등을 계획하고 있음
- 따라서 위도파시 재현을 위해 위도파시골목 재생사업, 서해파시해양문화권(가칭) 설정, 위도섬 발전계획 수립 및 활동가.전문가.주민 협력네트워크 구축, 파시복원을 위한 서해황금어장 복원 사업, 국립파시해양문화박물관 및 위도생활사 전시관 건립 등을 추진

# I. 위도 파시는 우리나라 3대 파시 중 하나

## □ 세종실록에 ‘파시(波市)’가 최초로 등장, 신증동국여지승람·숙종실록에도 기록

-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에 ‘파시(波市)’가 최초로 등장
  - 파시는 세종실록지리지(1454년)에 조기는 동군(同郡)의 서쪽 ‘파시평(波市坪)’에서 산출된다고 언급되면서 등장<sup>1)</sup>
  -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1530년)에도 ‘파시전(波市田)’이라고 언급되어 있음<sup>2)</sup>
  - 파시평, 파시전, 파시는 조기 등 어류가 많이 잡히는 어장을 가리킴
  - 파시는 해상위에서 열리는 생선시장으로 일시적 취락이 형성<sup>3)</sup>되어 상거래 등 어류의 유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며<sup>4)</sup>, 또한 파시는 회유성 어류로 인해 이동성을 지니고 있음<sup>5)</sup>



이미지출처: 세종실록지리지, 국사편찬위원회

- 숙종실록에 ‘파시평(波市坪)’에서 어세(漁稅)를 받아 조세로서 활용했다고 기록<sup>6)</sup>

- 파시평(波市坪)의 어세(漁稅)를 받아 진민(賑民, 가난한 백성)의 물자를 쓰고 감영(監營)에서 그 값을 궁가로 보내겠다고 하니 불허한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음

## □ 500년의 역사를 지닌 우리나라 대표 3대 파시

- 우리나라 3대 파시는 위도파시, 흑산도파시, 연평도파시임
  - 위도, 연평도, 흑산도 지역이 3대 파시로 성장한 이유는 해로가 발달되어 중국 및 일본과의 교류가 활발하였고, 어종들의 적합한 산란장소, 대량의 소금생산지 등의 영향을 받음<sup>7)</sup>
  - 파시의 형성 시기를 보면 조선전기(태동기), 조선후기(형성, 성립기), 일제강점기(전성기), 해방이후(쇠퇴기)로 구분할 정도 오랜 역사를 지님

1)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세종실록지리지 151권

2) 김준(2005). 파시의 어업기술사적 고찰, p.159.

3) 김진백(2016). 조선왕조실록상의 수산업. 수산경제연구원, p.47

4) 최길성(1991)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파시평(波市坪)은 세종실록 지리지의 기록을 들어서 원래 어장 위에서 중개인들이 생선을 팔고, 사는 의미의 해상의 시장이란 뜻이었고, 평은 그 장소를 뜻한다고 어원적으로 정의하였다. 파시는 어장과 어업근거지가 하나의 뜻으로 사용하게 된 것이다(최길성, 1991. 파시의 민속학적 연구. 중앙민속학, p.84)

5) 서정원(2004). 위도 조기파시의 민속학적 고찰.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p.41.

6) 김진백(2016). 조선왕조실록상의 수산업. 수산경제연구원, p.46

7) 서정원(2004). 위도 조기파시의 민속학적 고찰.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pp.36-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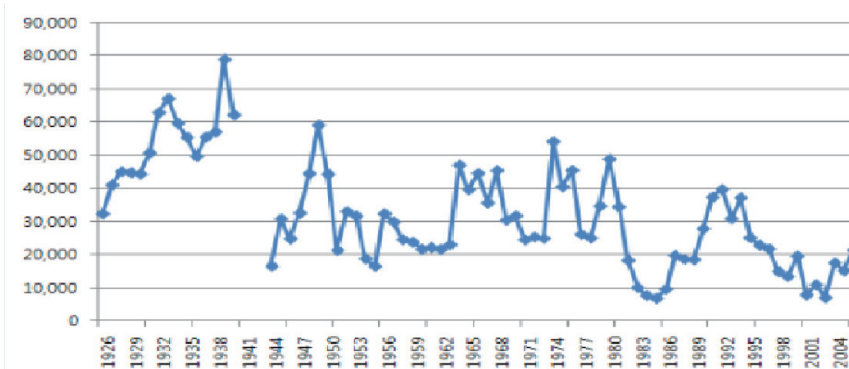
### 〈파시의 시기 구분〉

| 시기    | 성격     | 특징                                      |
|-------|--------|---|
| 조선전기  | 태동기    | 소규모의 교역형태                               |
| 조선후기  | 형성·성립기 | 중개인의 등장과 본격적인 파시형성                      |
| 일제강점기 | 전성기    | 일본인의 참여 및 발달 된 어구, 유통경로의 다양화로 가장 활발한 시기 |
| 해방이후  | 쇠퇴기    | 어족 자원의 고갈로 파시 소멸                        |

출처: 서정원(2004). 위도 조기파시의 민속학적 고찰.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p.43 재인용

- 파시는 조기어장이 형성되는 시기에 따라 형성되었는데, 2~3월에 흑산도, 3~4월에 위도, 5~6월에 연평도 등을 중심으로 형성<sup>8)</sup>
- 파시어장의 참조기 어획량은 1920년대에 3만톤에서 1930년대 8만톤을 기록할 정도 풍부하였으나, 1960년대 들어 와서 급감하기 시작<sup>9)</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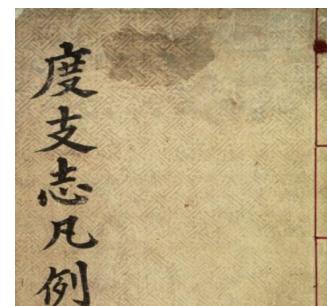
### 〈참조기 어획량 1926~2004〉



출처: 류정곤(2009.7.6), 파시의 고장 연평도. 월간 KMI수산동향 해양수산개발원

#### ○ 위도파시

- 위도는 서해안의 대표어장 중심지로 발달하였으며, 탁지지(度支志, 1788년)에 “호남의 조기 명산지인 위도에 파시평의 때가 되면(湖南之鰯島波市坪) 상선들이 몰려드는데 관리를 파견하여 감독하도록 했다” 등의 기록이 있어 매우 큰 파시가 형성된 것으로 보임<sup>10)</sup>
- 위도는 파시어장뿐만 아니라 군사적 요충지로서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에 따르면 1682년(숙종8년)에



이미지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8) 강화뉴스(2016.6.9). 우리나라 3대파시로 명성높았던 인천. 수산업르네상스 꿈꾼다.

9) 류정곤(2009.7.6). 파시의 고장 연평도. 월간 KMI수산동향 해양수산개발원

10) 서정원(2004). 위도 조기파시의 민속학적 고찰.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p.48.

처음으로 위도진이 설치, 53명의 수군이 주둔<sup>11)</sup>

- 위도 파시는 조선전기부터 시작하여 조선후기에 본격적으로 파시의 형태가 갖추어지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조선후기에는 청어파시 중심으로 형성되었다가, 1900년부터 조기파시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여 일제강점기에 조기파시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짐<sup>12)</sup>
- 위도파시는 조기잡이로 호황을 누리고 있었고, 조선총독부 조선의 취락(聚落)에 의하면 1933년의 4월부터 6월까지 일본배 400여척, 한국배 700여 척이 있었다고 함<sup>13)</sup>
- 1938년 위도에 어선 2백척, 승조원 1천300여명이 모여들었고, 요리점 9개소, 음식점 11개소 등과 무선전화를 설치(동아일보 1938.4.22)하였고, 한식 때부터 위도에 어선 수천 척이 모여들어 생선장이 만들어짐(동아일보, 1938.7.18)<sup>14)</sup>
- 위도파시로 인해 위도 배선착장 및 상권이 차도리에서 파장금으로 공간변화가 이루어졌는데, 이는 조기어획량 감소에 따라 뱃길과 어법의 변화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임<sup>15)</sup>
- 1960년대 말에서 1970년대 초에 서해안 지역에 조기 어획량이 급감함에 따라 위도 파시는 완전히 소멸된 상태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음



지도에서 1번이 부위도관아가 있는 진리고 그 앞에 전선들이 정박, 2번은 칠산, 3번은 식도  
출처: 부안독립신문(2008.10.17) 파시의 전설, 위도의 과거 그리고 지금<sup>16)</sup>

출처: 정책브리핑(2017.6.28). 김준의 섬섬옥수 위도(1930년 위도)

11) 정책브리핑(2017.6.28). 김준의 섬섬옥수 위도  
 12) 서정원(2004). 위도 조기파시의 민속학적 고찰.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p.44-47.  
 13) 서정원(2004). 위도 조기파시의 민속학적 고찰.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p.59. 재인용  
 14) 정재철(2016). 부안이야기 제13호. 부안21 재인용  
 15) 정책브리핑(2017.6.28). 김준의 섬섬옥수 위도  
 16) 부안독립신문 기사의 설명에 의하면 김형주이라는 분이 위도 지도를 규장각으로부터 입수하였다고 함. 이 위도 지도는 19세기 말 흥선대원군의 명으로 전국 각지에서 군사지도를 제작했으나 부안읍지도를 포함해 세 곳이 빠졌다고 함

### ● 흑산도파시

- 흑산도는 조선 최고의 어류도감인 자산어보(玆山魚譜)를 집필한 섬<sup>17)</sup>으로 해상교역의 중간 거점 지역으로 위상을 가지고 있음
- 흑산도파시는 일제강점기에 조기파시도 유명하였으나, 고래파시로도 명성이 높았고 일제강점기에만 약 1,464마리의 고래가 포획<sup>18)</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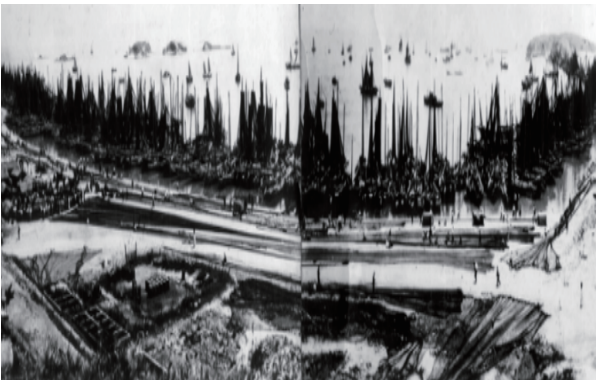
출처: 한국일보(<http://www.hankookilbo.com>), 2014.7.25  
바다위 수백척 어시장-목포 파시를 기억하십니까



출처: <http://m.blog.daum.net/tlsdkrsnscjd/>(전남일보, 208.12.22)

### ● 연평도파시

- 연평도 파시의 조기어획량은 1910년대에 195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1946년에 22,500톤이었으나 50~60년대에는 1만톤으로 감소한 후 1960년대 말에 이르러 어획량이 급감하여 연평도 파시 쇠퇴<sup>19)</sup>
- 1936년 연평도 파시에는 요리점 300개, 음식점 53호, 카페1호, 이발관 9개, 여인숙 5개, 대서소 2개, 등록 작부(酌婦) 95명, 예기(藝妓) 5명 등이 있었음<sup>20)</sup>



출처: 인천광역시(<http://liveincheon.tistory.com/3374>). 물반 고기반 연평파시



출처: 서울신문(2004.7.15 23면). 왕년의 조기잡이 메카 연평도

17) 중앙일보(2016.8.31). 흑산도 작은 돌담집엔 '자산어보' 쓴 정약전의 꿈꿈함이

18) 오마이뉴스(2018.2.3) 한국의 큰 고래 27%가 흑산바다에서 죽었다.

19) 인천광역시(<http://liveincheon.tistory.com/3374>). 물반 고기반 연평파시

20) 경인일보(<http://www.kyeongin.com>, 2009.5.6). 옛 인천의 황금어시장을 찾아서

## II. 위도파시 재현의 의미

### □ 위도파시는 조선시대부터 해방까지, 어업·경제·문화·교류의 중심

- 위도파시는 조선시대, 일제강점기, 해방 등에 이르기 까지 500년 동안 서해안 지역에서 남다른 어업 교류 중심지로서 연평도, 흑산도 파시와 함께 파시문화를 형성하는 대표적인 지역. 위도에 잡은 조기는 3대 파시 중 단연 으뜸
- 위도파시는 위도 치도리를 중심으로 조기파시 전성기가 이루어졌으나 어족자원의 고갈로 해방이후 그 명백을 유지하기 위해 파장금으로 이동하여 조기파시, 삼치파시, 키조개파시 등을 진행하여온 서해안 어업 기지였음
- 위도파시는 전라도 바닷길을 여는 관문 지역으로서 일본 및 중국 등 해상교류와 더불어 국내 해상 유통망의 교두보로서의 역할을 수행
- 따라서 파시의 거점 기능을 수행하였던 위도 파시를 재현하여 제2의 해양르네상스를 추진

#### 〈위도의 시기별 파시형태〉

| 시기            | 성격         | 장소      | 특징                        |
|---------------|------------|---------|---------------------------|
| 조선시대~일제강점기    | 조기파시 전성기   | 치도리     | 위도파시의 전성기 시절인 조기파시        |
| 해방이후~1970년대 초 | 조기파시 쇠퇴기   | 치도리 파장금 | 어족 자원의 고갈로 위도의 조기 파시 소멸   |
| 1960대~1970년대  | 조기파시, 삼치파시 | 파장금     | 위도지역 삼치 전성기 이후 어획량 감소로 소멸 |
| 1983년~ 미확인    | 키조개파시      | 파장금     | 위도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키조개        |

출처: 서정원(2004). 위도 조기파시의 민속학적 고찰.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p.62-67 참고하여 연구자가 재정리

### □ 위도파시는 어촌 섬 문화의 기억 저장소

- 위도파시는 섬 지역에서 형성된 지역생활 문화 및 역사적 흔적 등이 곳곳에 남아 있는 섬으로서 가치 존재
- 위도파시로 인해 외부인 정착이 이루어지고, 지역상권의 형성 및 인구유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자체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지역치안을 유지하고, 위도를 거점으로 출포항 및 법성포구 등의 교류 지역으로 활성화, 위도 주민들의 경제활동 참여가 이루어짐<sup>21)</sup>

21) 서정원(2004). 위도 조기파시의 민속학적 고찰.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pp.68-75.



- 위도파시문화는 한때 해상교류 및 경제활동의 중심지로 활발하게 성장하였으나, 위도파시가 소멸되어 이제 하나의 기억 및 역사 흔적만을 간직하고 있음
- 위도파시의 중심지인 파장금 마을은 현재 소수의 인원만이 거주하고 있고, 대부분 건물들이 역사의 흔적만 간직한 채 흉물스럽게 남아 있음
- 그러나 여전히 파시문화로 인해 형성된 위도 섬 문화의 고유한 이야기와 문화는 면면히 이어져 오고 있음. 위도 파시의 역사, 문화, 이야기, 생활 모습 등을 담아 자원화 추진 필요

〈위도파시의 중심지 파장금마을의 현재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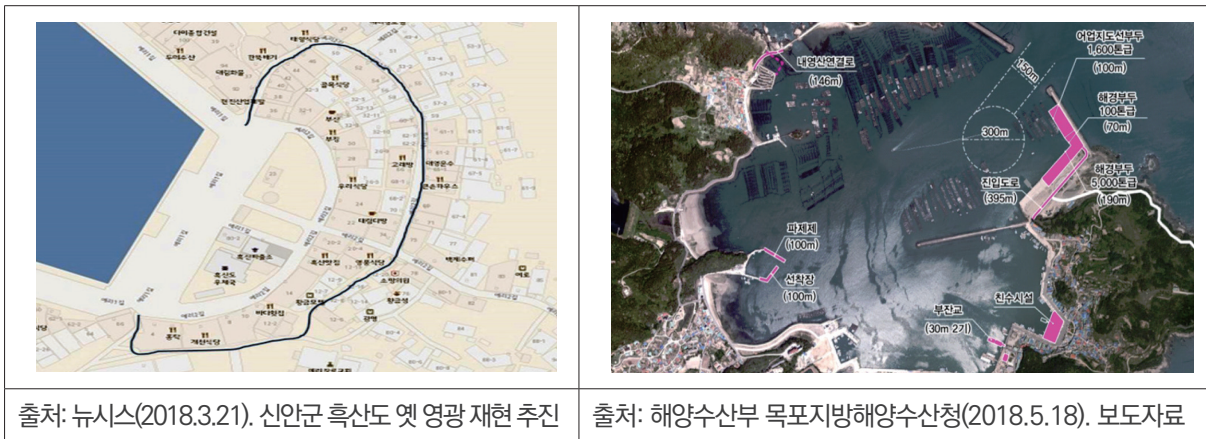
□ 연평도 및 흑산도 파시는 복원·문화 재현 추진

- 현재 연평도 및 흑산도파시는 파시의 복원·재현 및 문화자원 활용 사업 등을 통해 파시의 역사적 가치 및 문화적 가치, 해양적 가치 등을 재조명하고 있음
- 그러나 서남해안의 해상교류 거점이며 전라도 뱃길, 해상 군사적 요충지인 위도파시에 대한 재조명 및 도시재생, 문화자원 활용 사업 등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연평도파시는 인천 가치 재창조의 일환으로 복원 추진
  - 연평도파시 부활을 위한 참조기 치어 방류사업을 2013년부터 현재까지 추진(2018년 22만8천미 방류)
  - 해상파시 프로젝트(백령도~연평도 NLL)바다위 공동시장 조성 프로젝트를 통해 남북수산물 교역협력 활성화
    - 남북협력 추진을 위해 바다위 개성공단 및 서해5도 해상파시 추진
    - 문제인 정부 공약인 수도권~개성공단~해주 연결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 계획이 재조명되고 있음

|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계획〉   | 〈연평도참조기방류해역〉  |
|---|---|
|  <p>해주경제특구 개발<br/>해주~개성~인천 물류 네트워크 구축 가능<br/>군사분계선<br/>개성공단 내실화<br/>개성<br/>연륙교 설치 (강화도~개성)<br/>연평도<br/>인천~해주 육로 및 해로 직항로 개설 가능<br/>서울<br/>공동어로수역·평화수역<br/>연평도<br/>우도<br/>인천<br/>한강 하구 공동 이용<br/>백령도<br/>대청도<br/>소청도<br/>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 계획</p> |  <p>연평열도<br/>연평도<br/>대청도<br/>소청도<br/>개성도<br/>강화도<br/>연평도<br/>영종도<br/>인천광역시 INCHEON<br/>N 37°38'17.02"<br/>E 125°41'40.98"</p> |
| <p>출처: <a href="http://www.ohmynews.com/NWS(2018.4.15)">http://www.ohmynews.com/NWS(2018.4.15)</a><br/>바다위 개성공단, 서해5도 해상파시 추진해야</p>   | <p>출처: 인천수산자원연구소(2018). 참조기방류사업추진계획</p>   |

- 흑산도 파시골목 재현을 통한 문화 관광상품화 및 흑산도항 개발 추진
  - 흑산도 예리항 골목일대를 파시골목으로 조성하여 스토리텔링을 통해 문화자원으로 연계 추진
  - 흑산도항 개발사업 추진, 국가관리연안항 기본계획에 따라 2022년까지 622억원 투입하여 지역주민과 관광객 친수공간 및 해경부두 등을 건설<sup>22)</sup>

22) 해양수산부(2018.5.18) 흑산도항 영해관리 핵심거점항으로 개발 추진 보도자료



### III. 위도파시 재현을 위한 추진방향

#### □ 위도파시 골목재생사업 추진

- 위도파시 골목의 가치재생을 위한 실행계획 마련
  - 위도파시 골목에 대한 물리적, 인문·사회적 및 문화적 재생적 측면에서 가치를 발굴하고 골목의 보존 및 개발 등을 통해 생활터전으로서의 위도파시의 골목을 재생하기 위한 정책방향 및 실행계획 마련
- 위도파시 골목재현을 통한 매력 있고 활력 넘치는 생활터 조성 및 자원화 추진
  - 위도파시 골목 재생은 위도파시의 형성 및 역사적 자원, 생활 모습 등 위도파시의 자산을 보존하고 실질 가치를 높여 매력 있고 활력 넘치는 생활 터, 삶 터 그리고 문화관광자원으로서 조성하는 것이 필요
- 위도파시 골목 재생을 통한 지역공동체 실현 및 자생적 경제활동 조직화
  - 위도파시 골목 재생 사업을 통해 위도파시의 역사 및 스토리를 문화관광자원화하고 황폐화된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위도파시 골목의 커뮤니티 형성으로 지역 공동체 실현 및 자생적 경제 활동의 조직화 추진

〈위도 파장금마을 골목 공간현황〉



지도출처: 네이버 지도

□ 서해파시해양문화권(가칭) 설정을 통한 파시해양관광루트 조성

- 서해파시해양문화권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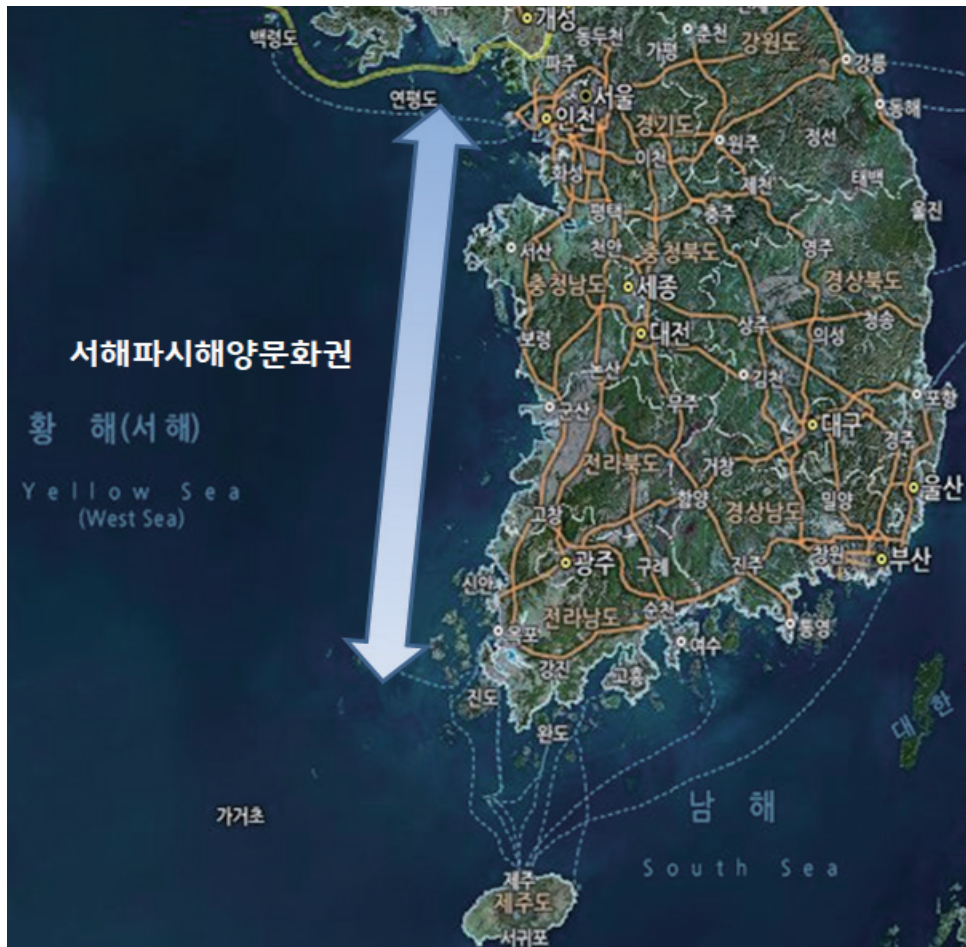
  - 서해안 지역의 3대 파시인 연평도, 위도, 흑산도를 연계하는 서해파시문화권(가칭) 설정하여 파시문화 재현 추진
  - 파시를 중심으로 형성된 서해안 지역의 역사적, 문화적 동질성을 회복하고 서해안 지역의 해양산업 및 해양레저관광산업 육성 등의 상생발전을 위해 공동협력사업 필요
- 3대 파시 섬 관광 전략 거점 조성 및 서해안 해양관광루트 조성

  - 3대 파시 거점 지역인 위도섬, 연평도섬, 흑산도섬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잠재력 및 관광콘텐츠를 가진 해양관광자원을 개발하여 관광객이 찾는 관광섬을 육성하고 서해안 연계 해양관광루트를 조성
- 남북한 수산협력을 통한 ‘서해남북평화해상파시’(가칭) 국가해양벨트 추진

  - 문재인 정부의 남북한 협력활성화 정책 일환으로 재조명되고 있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 지대의 공간을 연평도~위도~흑산도로 확대하여 ‘서해 남북평화 해상파시 벨트’추진

- ‘서해파시해양문화권 개발계획 수립’등을 통해 서해안 해양파시 문화 및 관광자원화를 위한 선도사업 및 공동협력사업 발굴
  - 3대 파시 서해안 해양문화권 설정 및 개발계획 등을 수립하여 선도사업 및 공동협력사업 발굴을 통해 서해안 해양지역의 발전기회와 개발효과를 극대화하여 파시해양문화 발전 기대

〈서해파시해양문화권(가칭)〉



지도출처: 네이버 지도

□ 위도섬 발전계획 수립 및 활동가·전문가·주민 협력네트워크 구축

- 파시문화를 계기로 위도를 관광섬 및 예술섬 등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떠나는 섬이 아닌 찾아오는 섬, 관광객이 방문하는 섬, 체류하는 섬으로 육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실천방안 및 사업 등을 구상

- 위도섬 발전계획을 제4차 도서종합발전계획(2018년~2027년)의 추진방향 및 추진내용과 연계하여 위도 주민의 삶의 질 제고 및 위도 섬 발전 사업 등을 추진
- 위도섬 발전 등을 위해 활동가, 전문가, 위도 주민이 참여하는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중간지원조직화를 통해 살기 좋고 찾아오는 섬으로 전환

〈제4차 도서종합발전계획 추진 내용 및 투자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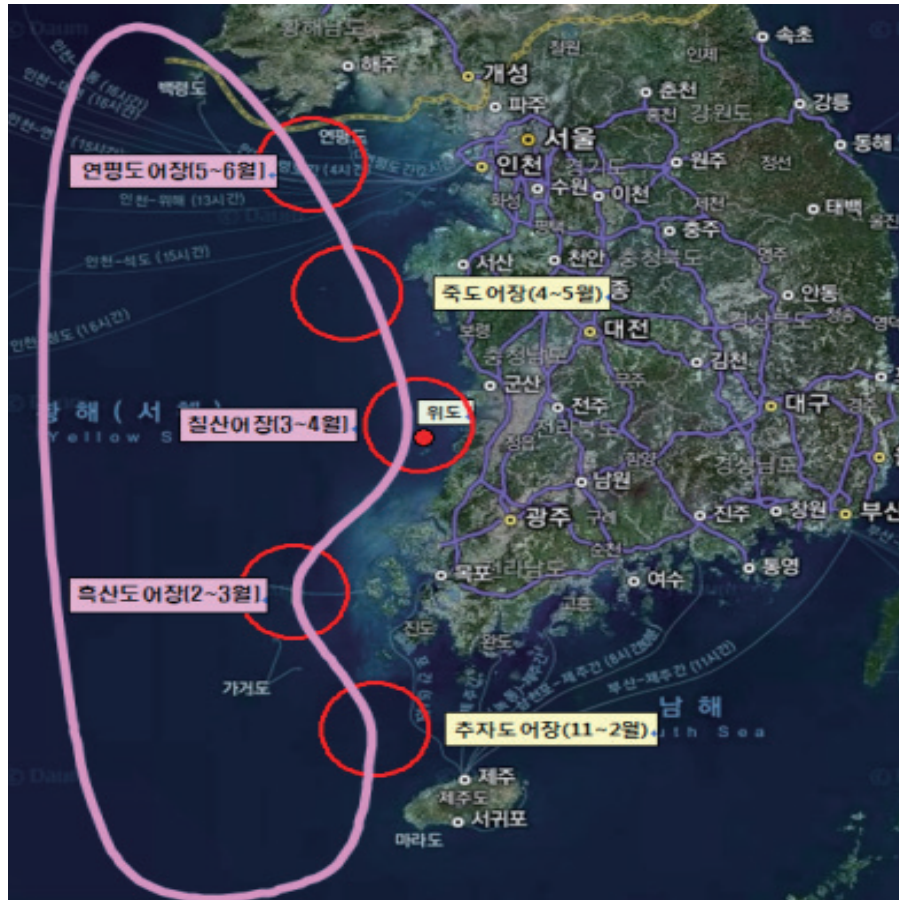
| 부문(6)  | 추진내용                 | 사업량<br>(건) | 투자계획(억원) |        |       |
|--------|----------------------|------------|----------|--------|-------|
|        |                      |            | 계        | 국비     | 지방비   |
| 합계     |                      | 1,256      | 15,132   | 13,115 | 2,017 |
| 소득·일자리 | 직판장, 어업기반 시설 등       | 516        | 4,572    | 4,161  | 411   |
| 정주여건   | 상·하수도, 도로, 발전시설 등    | 369        | 4,250    | 3,670  | 580   |
| 관광     | 둘레길, 관광시설 등          | 224        | 2,814    | 2,399  | 415   |
| 복지·문화  | 복지회관, 문화공간 등         | 90         | 542      | 460    | 82    |
| 교통     | 도선건조, 연륙·연도교 건설 등    | 38         | 2,486    | 2,040  | 446   |
| 패키지 사업 | 소득·관광·생활기반·문화복지 사업 등 | 19         | 468      | 385    | 83    |

출처: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18.8.8) 섬의 날 지정, 살고 싶고 찾고 싶은 섬으로 가꾼다.

□ 파시복원을 위한 서해황금어장 복원 사업 추진

- 위도는 해방이전까지는 조기파시, 해방이후는 삼치파시가 유명한 지역으로 서해안 및 전북 지역의 해상상권 핵심 거점 지역이었음
- 현재 조기 및 삼치가 거의 소멸되어 옛 명성만을 가지고 있어 어장 복원을 위해 조기 및 삼치 치어 방류 사업을 추진
- 서해 5개 시·도인 제주(추자도)~전남(흑산도·영광)~전북(위도·비안도)~충남(태안)~인천(연평도) 등과 공동협력사업으로 '서해황금어장 복원 사업' 추진

〈서해황금어장 복원 프로젝트 조기어로도〉



출처: 전라북도내부자료(2018)

□ 국립파시해양문화박물관 및 위도생활사 전시관 건립

- 위도파시, 연평도파시, 흑산도파시 등의 생활문화, 파시역사 및 어로기술, 어로장비, 선박 등 파시의 역사 및 기록, 문헌, 장비 등을 전시하고 교육적인 체험 활동을 위해 국립파시해양문화박물관을 위도에 건립
- 과거의 해양교류의 중심지이고 어업경제권의 중심지였던 위도의 생활사 등을 담은 위도생활사 전시관을 건립



전북 전주시 완산구 콩쥐팍쥐로 1696 (효자동3가 1052-1)  
대표전화 063.280.7100 팩스 063.286.9206